

배우 추가모집 공고

Art&Sharing 공연예술팀 '공드리'에서 배우를 추가모집합니다.

단체 소개

안녕하세요,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나눔 비영리 단체 아트앤셰어링 소속 '공드리'입니다.

아트앤셰어링은 문화예술의 가치에 기반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단체로,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대학원생들이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팀으로 나뉘어 창조적인 나눔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단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주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artnsharing.org
-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artnsharing
- 인스타그램: @artnsharing
- 블로그: blog.naver.com/artnsharing1

기획 의도 및 공연 소개

그중 공연예술을 통해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연예술팀 '공드리'에서는 이번 반기 '가정 밖 청소년'을 주제로 창작 연극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회 구성원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된 일명 '가출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 문제로 인해 집을 나오지만, 사회로 도망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잔인한 사회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며, 심지어는 당장 오늘 하루 잘 곳을 찾기도 힘듭니다.

선택지가 거의 없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각종 범죄입니다. 실제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또래 여러 명을 모으거나 혹은 각종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을 거두어 줄 성인을 찾아 '가출팸'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탓에, 자신을 거두어준 성인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얻거나 가출팸 자체를 성매매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출팸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정도 유지되고 따라서 가족의 대안이라기보다 그저 하나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가정에서 내몰린 청소년들은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자신들이 형성한 집단에서도 내몰리게 됩니다.

공드리에서는 개인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가정 밖 청소년 문제에서 사회의 책임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느낀 감정, 갈등, 고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일명 '가출 청소년 문제'라는 것이 과연 그들의 잘못인지, 그들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에는 과연 문제가 없는지, 연극 이후 관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배우 모집

앞서 이야기한 공드리의 이번 반기 연극을 함께 만들어 갈 배우를 추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기간: 6/24(월) - 6/28(금)
- 합격 발표: 6/28(금) 저녁
- 오디션 일정: 6/29(토), 6/30(일) 중
- 최종 합격 발표: 6/30 저녁 (문자로 개별 연락)

- 공연 일시: 8/23 - 24 (이틀 간 각 2회, 총 4회 공연 진행)
- 공연 장소: 성신여대 역 근처 '뜻밖의 극장'
- 연습 일정: 7/3(수)부터 시작, 매주 월수목 오후 1시-6시 (주 3회, 5시간씩)
- 지원 방법: bongdalm@gmail.com 으로 <이름 / 연락처 / 나이 / 거주지 / 경력사항 / 정면사진> 보내주시면 1차 합격 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배우 개인의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 공연 취지 상 해당 연극은 사회적 나눔 활동의 일환이므로, 배우 분들의 페이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모집 배역: 희영, 성오(총 2명)
- 등장인물 소개
 - 진하(여, 18세):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으나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나름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찾아온 아버지의 애인이라는 여자를 만난 이후 어머니는 무너져 내렸고, '그 남자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분노는 진하에게 고스란히 옮겨 간다. 어머니의 언어 폭력을 견디지 못한 진하는 결국 집을 나오고, 이후 성오와 희영을 만나 함께 살게 된다.
 - 희영(여, 18세): 성오와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아주 어릴 때 어머니에 의해 고아원에 맡겨져 자라지만 희영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온다. 아버지가 생긴다는 기대를 안고 희영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희영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가출을 한 희영은 여러 가출팸을 전전하다 성매매를 하게 된다. 이후 우연히 성오를 만나 성오의 도움으로 가출팸에서 빠져 나와 성오가 사는 원룸에 함께 살게 된다.
 - 성오(남, 21세):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되고 고아원을 뛰쳐 나와 원룸에서 살고 있으며, 택배 알바를 해서 겨우겨우 돈을 벌고 있다. 친구를 만나러 간 가출팸에서 우연히 같은 고아원 출신의 희영을 만나게 되고, 희영의 부탁으로 그녀를 가출팸에서 꺼내준 이후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한다.
- 지원 문의: 010-5046-0865

* 공드리의 연극을 함께 만들어 갈 배우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